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염 시 창[†]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 현 주

대성여자고등학교

본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간 관계를 알아보고,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반계 여고생 596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및 시험불안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중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평가가 시험불안 총점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 하위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평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반면,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그리고 조직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만이 시험불안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정도는 낮았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 시험불안, 완벽주의 →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 시험불안의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었고, 부분매개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염시창,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화 : 062)530-2352, E-mail : sichang@chonnam.ac.kr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문제, 학교공부 및 성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통계청, 2000). 실제로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불안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시험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안겨주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불안이란 유기체의 긴장을 수반하는 정서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간에 불일치를 느낄 때 발생한다. 특히 시험불안(test anxiety)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경향성으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괴롭히는 불쾌한 감정 상태를 말한다. 또한 시험불안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시험이 끝난 후까지도 계속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험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학생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최원혜, 1999).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심할 것이다.

시험불안에는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Libert & Morris, 1967: 최진승, 박영희, 1991에서 재인용). 즉 개인의 수행에 관한 인지적 고민과 관련된 걱정요인(worry) 및 시험장면에 임할 때마다 압박감에 대한 자동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규정되는 정서요인(emotionality)이 그것이다. 위의 두 가지 요인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걱정요인은 시험이 예측되는

상황 또는 실제 시험상황에서 성취에 매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정서 요인은 실제 시험상황에서만 야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걱정요인의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Wine(1982: 고희영, 1992에서 재인용)은 걱정요인이 수행기대 혹은 실제수행과 부적 상관을 갖는데 반해, 정서요인은 수행기대 혹은 실제수행과 일관성이 있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서 요인은 가변적이고 시험장면에만 국한되는 데 비해, 걱정의 특징은 인지적 요소로서 인지적 수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자동적 반응을 일으키며 시험불안을 지속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안정성 있는 성향이라고 하겠다. 한편 성종호, 이영식과 이길홍(1999)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걱정요인 및 정서요인 상에서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자들은 남학생의 경우 시험불안에 방어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시험불안의 점수 상에 표출을 적게 하지만, 여학생은 특성불안이 높고 불안을 표출하는데 사회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시험불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인한 자기평가와 과도한 부모의 기대로 인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완벽주의란 하나의 성격적 특성으로서,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완벽주의는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만큼 접근하는 입장도 매우 다양하다.

Hamacheck(1978: 유성은, 1997에서 재인용)은 완벽주의를 정상적(normal)인 완벽주의와 신경

증적(neurotic)인 완벽주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란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만 힘들게 노력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자신의 완벽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상황이 허용될 때는 완벽해지려는 것에서 곧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부과하며 실수에 대해 허용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잘 했다거나 완벽하게 해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높은 불안 정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완벽주의는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상의 차이에 따라 자기 지향적(self-oriented)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other-oriented)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socially prescribed) 완벽주의 등 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Hewitt, Flett, Endler, & Tassone, 1995). 첫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을 요구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나름대로의 완벽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차원의 완벽주의는 개인적 자원이 충분하거나 이를 건설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응적인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의 대상이 의미있는 타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해 내도록 기대하며,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불신, 적대감,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되고, 대인관계·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좌절하기 쉬워 부적응적인 차원으로 분류되지만, 타인의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응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이다. 이는 타인의 기준에 맞출 수 없을 것에 대한 걱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한편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1990)는 완벽주의를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경향성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아래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한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과 관련된 적응적인 측면(개인적 기준, 조직화)과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측면(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평가,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대별하였다(Frost, Heimberg, Holt, & Mattia, 1993).

첫 번째 차원인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는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차원인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과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포함한다. 세 번째 차원은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이고, 네 번째 차원은 부모의 평가(parental

criticism)인데, 이 두 가지 차원은 장애의 핵심과 완벽주의의 원인론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완벽주의자들이 부모의 평가적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다섯 번째 요인은 수행에 대한 의심(doubt about action)으로, 자신의 수행의 질(quality)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을 반영하며, 여섯 번째 차원인 조직화(organization)는 완벽주의자들이 질서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그동안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은, 1997; 홍혜영, 1995; Chang, Watkins, & Banks, 2004). 또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평가, 수행에 대한 의심 등이 사회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조영아, 이정윤, 2001).

각 개인이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시험불안의 수준은 달라진다. 여기에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 제안한 Bandura(1977: 김영상, 1995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고가 행위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적 판단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다. 성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차원은 자기효능감의 수준 즉 과제의 수행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와 관련된 차원으로, 과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높은 성취기대를 보이게 된다. 둘째 차원은 자기효능감의 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제의 성취를 위한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와 관련된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지속적인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차원은 자기효능감의 일반화 즉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차원으로, 개인의 과거 경험에 따라 일반화의 범위는 달라진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예측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지도나 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학습자의 학업적 수행과 관련된 맥락-특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모종의 판단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선호 등의 하위요인이 포함된다(김아영, 2001).

첫째, 위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지칭한다. 셋째, 과제수준선호란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아영(2001)

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활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간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완벽주의는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 이론에서는 완벽주의 기준을 가진 개인들이 높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주장해왔다(Hewitt 등, 1995). 그 이유는 불안이 이상적 자아와 현실 세계의 실제적 자아간 불일치를 느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 스트레스가 높은 과제 상황에서 완벽주의에 따른 불안수준은 더 높아진다. 이는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시험불안의 하위요인인 염려와 정서성은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한 예민성 등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 또한 최원혜와 문은식(2004)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 집단의 상태적·특정적 시험불안이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 특히 부적응적인 측면의 하위요인은 시험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완벽주의자들의 심적 태세가 결과 기대감과 효능 기대감 모두를 손상시킬 수 있다(Burns, 1980; 류지연, 2002에서 재인용). 즉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성공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목표로 인해 결과 기대감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 공포 때문에 자신의 과제 수행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완벽주의 성향 중 부적응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보면, 시험이라는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을 낮추고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도 적고 학업성취도도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대훈(199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영미(200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았고, 자기효능감 하위척도와 시험불안간 관계에서도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과 시험불안간 관계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을 것으로 예언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에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가? 여기에서 매개효과(mediator effects)란 예언변수와 결과변수간에 강력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이 관계의 배후에 있는 기제를 밝힐 수 있는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기존의 관계가 약화되는 경우를 지칭한다(Frazier, Tix, & Barron, 2004). 그러나 위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연구의 경우, 조영미(2003)가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지만, 단순히 예언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개효과를 밝히지는 못했다. 다만 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완벽주의와 우울간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홍혜영(1995)의 연구가 고작이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 의하면,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재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의 효과가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중재효과인지를 분명하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또한 Alden, Bieling과 Wallance (1994)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 한 검사를 통해 완벽주의 성향과 불안·우울간에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우울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목표의 설정과 목표 도달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성자(2000)도 단순히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이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높은 기대와 지각된 자신의 능력 즉 자기효능감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수행불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와 심리적 역기능 요인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Chang, Watkins와 Banks(2004)는 완벽주의와 정적·부적 심리기능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적 심리기능 변수로는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감, 그리고 부적 심리기능 변수로는 부정적 정서와 자살관념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변수가 매개변수로 설정된 근거는 완벽주의적 행동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 스트레스가 수행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낮은 만족감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감, 자살관념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긍정적 정서간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예언변수인 완벽주의 성향은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 때문에 결

과변수인 시험불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언변수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 596명으로, 이 중 1학년 학생이 410명, 그리고 2학년 학생이 186명이었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6: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번안한 현진원(1992)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평가,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 등 총 6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진원(1992)이 보고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고,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56 ~ .85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

뢰도 계수(Cronbach α)는 전체 문항의 경우 .86이었고, 6개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79, .69, .77, .57, .57, .80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자신감 8문항(예: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시킬까봐 불안하다),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예: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과제수준선호 10문항(예: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의 총 28문항으로, 1(전혀 아니다) ~ 6(매우 그렇다)으로 채점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김아영(2001)의 연구에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검사의 신뢰도는 .84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2, .83, .71이었다.

시험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불안 척도는 고혜영(1992)이 Spielberger 등(1980)의 TAI(Test Anxiety Inventory)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검사는 시험기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에 관계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인인 걱정(worry)을 측정하는 8개 문항(예: 시험점수 생각에 시험공부가 안 될 때가 있다), 정서적 요인인 정서성

(emotionality)을 측정하는 8개 문항(예: 시험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른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불안을 측정하는 4문항(예: 이제 시험이나 성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을 포함하여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불안 검사의 채점 방식은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느낌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0점~10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전체 검사의 경우 .87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74, .81, .41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다음,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고, 각 예언변수의 하위요인이 다른 변수의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투입방법을 활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각 잠재변수간 관계모형 상에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Arbuckle, 1999). 여기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및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절차가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 과

변수간 상관

본 연구의 변수간 상관을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간 상관을 보면,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조직화요인의 경우 시험불안의 모든 하위요인 및 시험불안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부모기대 요인과 정서성 간에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 요인이 불안의 하위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한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에서는 염려, 부모의 평가, 수행의심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완벽주의의 다른 하위요인은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시험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간 회귀분석

첫째,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시험불안 총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수행의심($\beta = .28, \Delta R^2 = .165, t = 6.72, p < .001$), 염려($\beta = .23, \Delta R^2 = .053, t = 5.34, p < .001$) 및 부모평가($\beta = .13, \Delta R^2 = .015, t = 3.34, p < .01$) 요인이 불안총점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수행의심과 염려 및 부모평가 수준

표 1.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변수간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②	.42***														
③	.34***	.40***													
④	.28***	-.04	.26***												
⑤	.44***	.28***	.15***	.20***											
⑥	.22***	.43***	.12**	-.01	.22***										
⑦	.78***	.71***	.61***	.38***	.58***	.57***									
⑧	.33***	.11**	.09*	.24***	.38***	.07	.31***								
⑨	.35***	.16***	.08	.22***	.35***	.07	.32***	.69***							
⑩	.31***	.14***	.10*	.18***	.30***	.05	.28***	.61***	.63***						
⑪	.39***	.17***	.10*	.25***	.40***	.08	.36***	.92***	.90***	.78***					
⑫	-.33***	.04	-.02	-.32***	-.28***	.02	-.22***	-.49***	-.46***	-.43***	-.53***				
⑬	-.05	.31***	.12**	-.23***	-.13**	.30***	.12**	-.23***	-.09*	-.16***	-.20***	.35***			
⑭	-.05	.31***	.06	-.20***	.01	.15***	.09*	-.20***	-.07	-.18***	-.16***	.27***	.34***		
⑮	-.19***	.30***	.07	-.33***	-.16***	.21***	.00	-.41***	-.26***	-.34***	-.38***	.70***	.73***	.78***	
M	24.15	18.23	15.18	8.94	13.26	18.49	98.25	24.62	21.63	13.46	59.88	30.46	34.68	33.34	98.66
SD	5.14	3.71	3.64	2.45	2.64	4.01	13.64	6.27	5.42	2.53	12.57	6.63	6.55	8.53	16.07
N	589	593	592	595	594	594	580	586	588	590	577	596	596	596	596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 염려 ② 개인기준 ③ 부모기대 ④ 부모평가 ⑤ 수행의심
 ⑥ 조직화 ⑦ 완벽주의 총점 ⑧ 걱정 ⑨ 정서성 ⑩ 일반불안
 ⑪ 시험불안총점 ⑫ 자신감 ⑬ 자기조절 ⑭ 과제수준선호 ⑮ 효능감 총점

표 2. 완벽주의 하위요인의 시험불안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ΔR^2	t	p
수행의심	1.33	.20	.28	.165	6.72***	.000
염려	.55	.10	.23	.053	5.34***	.000
부모평가	.66	.20	.13	.015	3.34**	.001

$R^2 = .233$, $MS_{error} = 122.42$, $F(3, 559) = 56.45$, $p < .001$.

** $p < .01$. *** $p < .001$.

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총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부모평가($\beta = -.24, \Delta R^2 = .110, t = -6.05, p < .001$), 염려($\beta = -.26, \Delta R^2 = .064, t = -6.00, p < .001$), 수행의심($\beta = -.14, \Delta R^2 = .014, t = -3.51, p < .001$)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점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개인기준($\beta = .35, \Delta R^2 = .084, t = 7.69, p < .001$), 조직화($\beta = .13, \Delta R^2 = .013, t =$

$3.35, p < .01$) 및 부모기대($\beta = .09, \Delta R^2 = .006, t = 2.16, p < .05$)의 요인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는 부모평가, 염려, 수행의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는데 비해, 개인기준과 조직화 및 부모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언한 연구가설은 지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시험불안 총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학업적 자기효

표 3. 완벽주의 하위요인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ΔR^2	p
부모평가	-1.55	.26	-.24	-6.05***	.110	.000
개인기준	1.54	.20	.35	7.69***	.084	.000
염려	-.83	.14	-.26	-6.00***	.064	.000
수행의심	-.86	.25	-.14	-3.51***	.014	.000
조직화	.53	.16	.13	3.35**	.013	.001
부모기대	.39	.18	.09	2.16*	.006	.032

$R^2 = .291, MS_{err} = 188.50, F(6, 573) = 39.16,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시험불안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p
자신감	-1.00	.07	-.53	-15.08***	.000

$R^2 = .284, MS_{err} = 113.46, F(1, 575) = 227.54, p < .001.$

*** $p < .001$.

능감의 세 요인 중 자신감 요인만이 시험불안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53, R^2 = .284, t = -15.08, p < .001$), 이 결과는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을 것으로 예언한 연구가설은 지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간 관계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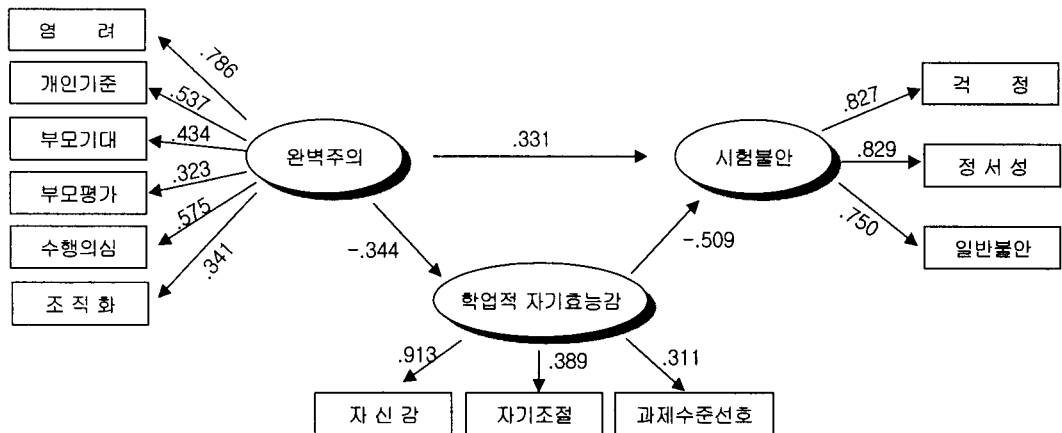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을 예언변수,

시험불안을 결과변수,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다음, 공분산구조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 및 그림 1과 같다. 먼저 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보면,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이 556.294로 .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검증통계량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 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분석결과, TLI와 CFI는 모형의 적합

표 5.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 검증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CR
완벽주의 → 시험불안	.425	.068	.331	6.21
완벽주의 → 자기효능감	-.226	.051	-.344	-4.47
자기효능감 → 시험불안	-.998	.163	-.509	-6.13

$\chi^2 = 556.294, df = 51, p < .001, TLI = .967, CFI = .979, RMSEA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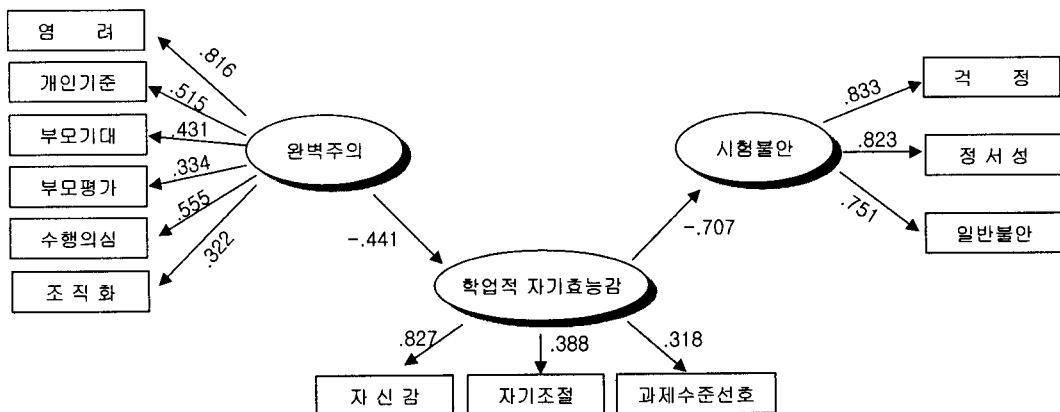
주. 모든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간 관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모형

도 기준인 .95보다 높아 이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만, 모수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가 기준값인 .06보다 높아 문제가 있었지만, TLI와 CFI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수락하였다. 각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beta = -.331, CR = 6.21, p < .05$), 완벽주의 →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344, CR = -4.47, p < .05$), 학업적 자기효능감 → 시험불안($\beta = -.509, CR = -6.13, p < .05$)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연구가설은 지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경합모형(그림 2)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두

가지 매개모형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위의 모형의 경우,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간 χ^2 값의 차이를 통해 모형 비교를 시도하였는데(홍세희, 2000), 검증결과 χ^2 값의 차이는 44.324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인 3.8보다 커,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상의 완벽주의 → 학업적 자기효능감($b = -.226, SE = .05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 시험불안($b = -.998, SE = .163$)의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증 중 Goodman (I) 방정식을 사용한 검증을 시도하였다(Barron & Kenny, 1986). 검증결과, 위의 모형 상에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559, p < .001$). 따라서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언한 연구가설은 지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 모든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5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간 관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모형

표 6. 매개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556.294	51	.967	.979	.129
완전매개모형	600.618	52	.965	.977	.133
차이	44.324	1			

논 의

본 연구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간 상관을 보면,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조직화 요인의 경우 시험불안의 모든 하위요인 및 시험불안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부모기대 요인과 정서성 간에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요인이 불안의 하위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한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상관에서는 염려, 부모의 평가, 수행의심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완벽주의의 다른 하위요인은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시험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수행의심, 염려, 부모평가 요인은 불안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반면 여타의 하위요인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행의심과 염려

및 부모평가와 같은 부적응적인 측면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총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Hewitt 등(1995) 및 현진원(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홍종호(2002)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부모평가, 염려, 수행의심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총점과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개인기준, 조직화 및 부모기대의 요인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평가, 염려, 수행의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데 비해, 개인기준과 조직화 및 부모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부적응적인 측면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은데 반해, 부적응적 측면의 성향이 높을 경우 정반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완벽주의자들의 심리적 태세가 결과 기대감 및 효능감 기대를 손상시킨다고 본 Burns (1980: 류지연, 2002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시험불안 총점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세 요인 중 자신감 요인만이 시험불안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연구결과는 권대훈(1991)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고,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과 시험불안 간에 가장 높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조영미(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을 예언변수, 시험불안을 결과변수,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시도한 결과, 완벽주의 → 시험불안, 완벽주의 →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 시험불안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관련된 연구가설을 지지한 것으로, 선행 연구들(권대훈, 1991; 류지연, 2002; 조영미, 2003; 홍중호, 2002)과 유사하거나 일치된 결과였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

분매개모형이 적합하고,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완벽주의와 정적·부적 심리기능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Chang, Watkins와 Banks(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부적 심리기능인 부정적 정서와 자살관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경우 결과변수로 설정한 시험불안이 부정적 정서에 해당되고, 예언변수가 위의 연구와 동일하며, 매개변수는 달랐지만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간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부모의 평가가 시험불안을 예언하는데 유의하였다. 따라서 위의 하위요인의 성향을 낮출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경우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시험장면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특히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전략이나 개입 프로그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거론한 바

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감소 프로그램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수업 및 개입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 다음,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측정을 위해,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평가,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 등 총 여섯 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완벽주의 척도뿐만 아니라 자기·타인지향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 그리고 성취 추구적 완벽주의와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로 구분한 척도 등을 종합하여 타당화하고,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성중호, 이영식과 이길홍(1999)의 연구에서 시험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는 여고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상에서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계 남학생과 여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위의 세 변수간 관계모형을 설정하고,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comparison)을 통해 관계모형이 성별로 다른가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성자 (2000). 완벽주의적 성향, 자기효능감이 평가적 상황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영 (1992). 교사기대지각 · 학문자아개념 · 시험불안과 학업성취간의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훈 (1991). 수험능력의 구성요소와 관련요인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1).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상 (1995).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판단과정 연구, 교육문제연구, 7, 227-24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중호, 이영식, 이길홍 (1999).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신경정신의학, 38(3), 571-582.
- 유성은 (1997).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2003).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 이정운 (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93-104.
- 최원혜 (1999). 중학생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혜, 문은식 (200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8(1), 23-35.
- 최진승, 박영희 (1991). 시험불안의 특성과 불안감소 이론 연구. 학생연구, 19, 5-28,

-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통계청 (2000). 2000 한국의 사회조사 지표.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홍종호 (2002). 완벽주의 성향이 시험불안자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den, L.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297-317.
Arbuckle, J. L. (1999). *Amos 4.0 {Computer Software}*. Chicago, IL: Smallwaters.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Chang, E. C., Watkins, A. F., & Banks, K. H. (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female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102.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 Mattia, J. I.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4*, 449-468.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Hewitt, P. L., Flett, G. L., Endler, N. S., & Tassone, C. (1995). Perfectionism and components of state and trait anxiety.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13*(4), 326-350.
- 원 고 접 수 일 : 2005. 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5. 5. 26.
게 재 결 정 일 : 2005. 6. 10.

How Perfectionism Relates to Test Anxiety: Testing a Mediation Model of Academic Self-efficacy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Sichang Yu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yun-Joo Park

Daesung Girls' High School

The goals of the present study were (a) to examine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tic tend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b) to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of perfectionism with test anxiety would be mediated by academic self-efficacy. Five hundred ninety-six female high-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nd test anxiety scale.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were employ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fectionism such as doubt about action, concern over mistake and parental criticis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eater test anxiety. Second, perfectionism such as parental criticism, concern over mistake, and doubt about action led to the lower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whereas personal standard, parental expectation, and organiz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self-efficacy. Third, in the sub-scales of academic self-efficacy, only confidence variab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less test anxiety. Fourth, the results of regressing perfectionism on both test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showed that perfectionis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eater test anxiety and less academic self-efficacy. Also,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resulted in lower test anxiety. Fifth, this study tested the model in which academic self-efficacy mediated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perfectionism, academic self-efficacy, test anxiety